

8주차 | 학습목차



학습목차

01. 박인덕의 성장 과정과 독립운동

- 개명과 개종
- 유관순과 서대문형무소
- 대한애국부인회 사건과 결혼

02. 박인덕의 미국 유학과 이혼

- 미국 유학과 강연 활동
- '조선의 노라' 박인덕 이혼 사건
- 이혼 후의 활동

03. 박인덕의 세계일주

- 《세계일주기》 출간
- 박인덕의 세계 인식
- 식민지 말기의 현실

04. 박인덕의 교육 철학과 현실 참여

- 덕화여숙과 베레아 학교
- 박인덕의 친일 협력
- 미국에서 자서전 쓰기

05. 임영신의 성장 과정

- 아버지와 딸
- 3.1운동과 유학
- 중앙보육학교 인수

06. 해방기 임영신의 정치 활동

- 해방과 건국부녀동맹
- 조선여자국민당
- 임영신의 외교 활동

07. 임영신과 대한민국 제1공화국

- 상공부장관 임영신
-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
- 낙선과 정계 은퇴



8주차 | 학습목표

3차시.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학습목차

학습목표

- 박인덕이 출간한 세계여행기를 중심으로 박인덕의 현실 인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.

학습내용

- 《세계일주기》 출간
- 박인덕의 세계 인식
- 식민지 말기의 현실



8주차 |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



3차시

박인덕의 세계일주





《세계일주기》 출간

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일주

- 조선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세계를 여행한 박인덕
- 1941년
 - 《세계일주기》 (조선출판사) 출간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일주

- 1926년부터 1937년까지 약 35개국 여행

“비록 반도의 여자로 태어났을 망정 일찍이 허난설헌과 같이 팔도강산을 헤매이고 싶었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밟으면서 남의 인정, 풍속, 문물, 경치를 보고 그 본 바 있는 바를 색채나게 그리고 글로 써서 읽고도 싶었다. 나에게 철이 생긴 뒤로 이런 꿈을 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.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일주

- 순회 강연으로 시작된 세계 여행
 - 미국, 캐나다, 영국, 아일랜드, 프랑스, 벨기에, 인도 등에서 강연
- 1차 여행
 - 1926년 ~ 1931년
- 2차 여행
 - 1935년 ~ 1937년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일주

- 전쟁의 긴장 속에 출간된 《세계일주기》
- 제2차 세계대전 중
 - 일본은 조선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함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일주

■ 여행의 의미

“실로 남의 것을 보는 데서 내 것의 호불호, 편불편을 알 수 있고 그 진가와 귀천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. 따라서 의견이 생겨 좋은 것은 모방하고 불편한 것은 개량하고 없는 것은 창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. 남녀 청년들은 자기를 스스로 가두는 심적 경계선을 뚫 떠나서 작년 가을에 일본호가 세계를 휩싸고 돌아오듯이 생각과 생활의 범위가 넓어져서 너그러운 생을 살게 되어야 할 것이다.”

박인덕, 〈서문〉 (《세계일주기》) 중

박인덕의 세계 인식

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인식

-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세계를 인식한 박인덕
 - 폴란드와 아일랜드, 미국의 역사에 주목
 - 폴란드인의 애국심에 대한 예찬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인식

-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세계를 인식한 박인덕
 - 아일랜드의 독립과 언어에 관심
 - 아일랜드어 부흥 운동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세계 인식

-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비추어 세계를 인식한 박인덕
 - 덴마크의 장년교육기관과 실용교육기관에 감화
 - 농촌 계몽운동가로서 박인덕이 선망한 덴마크



박인덕이 발행한 '정말 (덴마크) 국민고등학교'(1932)

[출처:1] e뮤지엄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미국 인식

- 미국의 자유에 대한 동경
- 미국 역사의 개척자들의 흔적 답사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미국 인식

- 미국의 풍요에 대한 충격

“배가 뉴욕 항구에 거의 이를 때 갑판에서 바라보니 수십 층의 빌딩이 공중에 솟았고 그 모양이 마치 토막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쌓아 놓은 것 같았다. 그야말로 사람이 만든 일대 숲이다. 상륙하여 보니 돌아가며 부두가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다. 마중 나왔던 친구들의 안내로 지하철도를 찾아 땅 속으로 난 층대로 내려가니 땅 속에 한 세상이 또 있다. 서점과 과자점이 있고 긴 의자가 정류장에 놓여 있다.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미국 인식

- 누구나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로 인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박인덕의 미국 인식

- 미국을 동경하지만,
미국이 조선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판단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전 세계의 경계선을 모두 통과하는 꿈을 이룬 박인덕

- “파나마 운하만 통과하면 남미주와 북미주 사이를 지나게 되니
이렇게 되면 6대 주의 경계선을 모조리 지나보는 셈”....
“이것이 제일 유쾌하고 기쁜 일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전 세계의 경계선을 모두 통과하는 꿈을 이룬 박인덕

- 세계 여행을 통해 조선의 자연과 문화를 재발견



식민지 말기의 현실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동남아시아에서 목격한 제국 일본의 확장력

- “콜롬보에서는 일본산이라고 쓰여진 상품이 많은 것을 보고 놀랐다. 인도의 판매원들은 내가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일본말로 내게 말을 걸었다. 싱가포르의 내가 마지막 방문한 이래 6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. 어디에 가나 일본 사람들이 있었고 큰 상점에서 일본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원주민 상인들은 일본 말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다.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동남아시아에서 목격한 제국 일본의 확장력

- 나는 너무도 분명히 여태까지 영국과 네덜란드가 지배하던 동남아시아를 이제는 일본이 떠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.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귀국 후 박인덕의 활동

- 1937년 귀국 후
 - 일본의 영향력 체감
 - 일본어 강습회 등록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귀국 후 박인덕의 활동

- 조선인의 생활 개선운동에 관심
- 실업 교육기관 설립 착수



생활개선에 대한 관심을 피력한 박인덕의 글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40년 7월 22일자 4면

8주차 근대 여성 지식인의 야망, 박인덕과 임영신 | 3차시 박인덕의 세계일주



다음 차시에서는

- 박인덕의 교육 철학과 현실 참여

SOURCES



[출처01] e뮤지엄(<https://www.emuseum.go.kr>),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(소장품번호 한백 13070)

[출처02] 《매일신보》 1940년 7월 22일자 4면



기획·조정
이화진·정다영

교안
이유정·윤승희

영상
김록현